

레미콘 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1. 2001년 3/4분기 건설경제동향

1) 개황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실질 국내총생산현황」에 의하면 2001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설비투자과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민간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건설투자가 증가

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대비 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민간건설과 정부건설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3.1%의 감소세에서 반전하여 올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건설이 토목건설에서 공항건설,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크게 늘어나 4.9% 증가

〔표 1〕 건설업 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1999	2000	2001*				
			연간	1/4	2/4	3/4	4/4
건설업	▲9.1	▲3.1	5.6	2.4	1.5	7.6	9.5
민간건설	▲15.8	▲7.0	4.9	1.9	2.0	7.5	7.2
주거용	▲17.9	▲10.2	13.3	1.0	4.3	16.4	32.1
비주거용	▲47.2	8.0	1.0	9.3	6.2	1.8	▲17.3
토목	6.9	▲10.6	▲3.4	▲3.8	▲3.7	1.9	▲6.7
정부건설	4.2	3.1	7.2	3.7	▲1.2	8.0	13.6

자료 : 한국은행 '2001년도 국내총생산' 참조

〔표 2〕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기간	1999	2000	2001*				
				연간	1/4	2/4	3/4	4/4
건설투자		▲10.3	▲4.1	5.8	1.5	1.1	8.2	10.7
건물건설		▲25.3	▲0.2	9.8	3.2	4.6	13.2	17.9
기타건설		6.5	▲7.1	2.4	▲1.0	▲1.6	4.3	5.8

자료 : 한국은행 '2001년도 국내총생산' 참조

하였으며, 정부건설은 학교 등 건물건설이 크게 증가한 데다 항만시설, 일반도로 등 토목건설도 늘어나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건설투자는 전년 감소세에서 탈피하여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다. 이중 건물건설 투자가 광공업용 건물건설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큰 폭 증가로 반전되어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공항시설, 통신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전력시설, 농림수산토목, 항만시설 등은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01년도 건축허가 면적

2001년도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81,059천㎡ 대비 20.6% 증가한 97,717천㎡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 및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의 증가세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2001년도 1/4분기는 15,634천㎡로 전년동기 대비 14.0%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과 주

택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2/4분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2001년 건축허가면적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레미콘 투입 비중이 가장 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주거용은 전년 41,283천㎡ 대비 15.9% 증가한 47,856천㎡로 집계되었으며, 상업용은 경기회복세를 반영 전년 18,885천㎡ 대비 37.1% 증가한 25,888천㎡가 허가되었다. 또한 공업용 건축허가면적은 13,538천㎡가 허가되어 전년 11,645천㎡에 비하여 16.3% 증가하였다.

2001년에 이어 2002년 1월에도 건축허가 면적의 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하반기 까지 레미콘 출하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2001년도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2001년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67조 8,3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부문 수주액은 전년동기보다 6.9% 증가한

[표 3] 건축허가 면적 증감 추이

(단위: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증감율
	면적	증감율	면적	증감율	면적	증감율	면적	증감율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20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0. 1/4	18,178	90.6	8,785	72.3	4,012	109.5	3,415	266.2	1,966	23.4
2/4	21,454	35.6	10,297	16.4	5,394	91.1	3,417	83.0	2,346	2.7
3/4	21,117	33.4	10,969	25.5	4,876	69.2	2,713	20.6	2,559	31.0
4/4	20,310	△35.2	11,231	△48.8	4,603	11.5	2,100	△24.3	2,376	△5.9
20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3	10,435	12.9
1/4	15,634	△14.0	6,466	△26.4	3,830	△4.5	3,533	3.4	1,805	8.2
2/4	26,290	22.5	12,923	25.5	6,610	22.5	3,789	10.9	2,969	26.5
3/4	25,538	20.9	12,835	17.0	6,926	42.0	3,179	17.2	2,598	1.6
4/4	30,254	49.0	15,633	39.2	8,520	85.1	3,038	44.7	3,064	29.0

자료 : 대한건설협회

[표 4] 2001년 국내건설 총계약액 현황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연간	01.1/4	2/4	3/4	4/4
계 약 액	47,902	51,136	60,152	67,836	10,520	17,461	14,825	25,028
증 감 율 (%)	-40.1	6.8	17.6	12.8	-20.7	2.4	16.2	48.6

자료 : 대한건설협회

37조 9,48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민간토목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체의 설비 및 건설투자는 부진하였고 민간투자사업도 약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5조 3,074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민간건축은 주거용이 상반기에는 경기침체로 부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저금리기조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여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21조 4,642억원 이었으며, 비주거용은 문화재 및 종교시설 등은 부진하였지만 교육시설, 병원 및 상업용 건축 등이 상승세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11조 1,772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분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29조 8,871억원으로 이중 공공토목은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한 20조 6,94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공공건축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따라 주 발주처인 주택공사의 발주가 호조를 보인 주거용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한 9조 1,9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 2001년도 레미콘산업 동향

2001년도 레미콘 산업은 581개업체 735개 공장에서 총 119,230,162m³를 출하하여 전년 같은 기간의 109,081,388m³대비 9.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레미콘 산업은 레미콘의 주 수요

처인 주거용 및 비주거용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간아파트와 지하철, 상업용 건물건설 등이 호조를 보였고 특히 레미콘 수요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레미콘운송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레미콘 출하가 중단되는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상반기중 일부지역에서 레미콘 출하 중단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노조문제가 다소 해결되고 다세대 주택을 비롯한 소형주택 발주가 상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레미콘 출하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수요별로 살펴보면 관수레미콘이 전년 대비 11.42%증가한 25,537,288m³를 출하하였으며, 민수용 레미콘은 전년대비 8.74% 감소한 93,692,874m³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수용 레미콘의 출하가 상대적으로 민수용 레미콘의 증가세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관수용 레미콘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실효를 거두고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경기장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의 발주가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수용 레미콘의 증가는 전술한 바와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경기진작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확대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서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북, 대구, 부산, 울산 등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과 충북,

(표 5) 전국 레미콘생산업체 현황

(2001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지 역	업체수	공장수	배 처 플 랜 트			레미콘 믹서트럭 보유대수	시멘트 사이로 (Ton)
			기수 No.	레미콘생산능력			
				m ³ /hr	千m ³ /年		
서울·경인	101	154	265	51,740	103,480	6,724	170,730
강 원	71	79	85	11,970	23,940	1,044	39,720
충 북	40	41	51	8,070	16,140	743	23,470
대전·충남	70	91	118	19,284	38,568	1,688	80,880
전 북	53	57	74	12,210	24,420	1,040	44,550
광주·전남	70	81	101	16,860	33,720	2,044	59,675
대 구	78	88	108	16,570	33,140	1,390	76,980
경 북	22	22	33	5,930	11,860	656	27,200
부 산	58	59	75	12,420	24,840	1,423	48,550
울 산	18	19	26	4,260	8,520	391	15,340
경 남	24	27	43	7,550	15,100	1,026	47,400
제 주	17	17	21	3,450	6,900	348	12,039
전국총계	581	735	1,000	170,314	340,628	18,477	646,534

- 주 :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3. 시멘트사이로는 각 레미콘공장 보유 시멘트사이로의 합계 임.

(표 6) 2001년도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m³)

지 역	수요별	2001년	2000년	증감률(%)	점유율(%)
서울·경인	민 수	43,038,651	38,630,531	11.41	40.68
	관 수	5,465,828	5,517,444	▲0.94	
	계	48,504,479	44,147,975	9.87	
강 원	민 수	3,208,772	3,444,437	▲6.84	4.55
	관 수	2,221,834	2,159,488	2.89	
	계	5,430,606	5,603,925	▲3.09	
충 북	민 수	3,104,953	2,922,586	6.24	3.78
	관 수	1,396,605	1,099,728	27.00	
	계	4,501,558	4,022,314	11.91	
대전·충남	민 수	7,212,499	7,271,962	▲0.82	8.32
	관 수	2,705,082	2,491,376	8.58	
	계	9,917,581	9,763,338	1.58	
전 북	민 수	4,346,924	3,975,811	9.33	5.17
	관 수	1,821,854	1,481,592	22.97	
	계	6,168,778	5,457,403	13.04	
광주·전남	민 수	6,750,454	6,818,972	▲1.00	8.55
	관 수	3,441,311	2,779,029	23.83	
	계	10,191,765	9,598,001	6.19	

경 북	민 수	5,980,639	5,144,557	▲16.25	7.89
	관 수	3,423,109	2,927,234	16.94	
	계	9,403,748	8,071,791	16.50	
대 구	민 수	4,619,328	3,710,543	24.49	4.23
	관 수	419,009	391,022	7.16	
	계	5,038,337	4,101,565	22.84	
경 남	민 수	6,483,839	6,080,352	6.64	7.65
	관 수	2,632,207	2,255,927	16.68	
	계	9,116,046	8,336,279	9.35	
울 산	민 수	2,536,574	2,118,453	19.74	2.54
	관 수	486,950	443,391	9.82	
	계	3,023,524	2,561,844	18.02	
부 산	민 수	5,238,107	4,591,354	14.09	5.14
	관 수	887,039	832,893	6.50	
	계	6,125,146	5,424,247	12.92	
제 주	민 수	1,172,134	1,451,884	▲19.27	1.52
	관 수	636,460	540,822	17.68	
	계	1,808,594	1,992,706	▲9.24	
합 계	민 수	93,692,874	86,161,442	8.74	100.00
	관 수	25,537,288	22,919,946	11.42	
	계	119,230,162	109,081,388	9.30	

전북 지역의 출하 증가세가 두드러졌지만 강원, 제주, 지역은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수요물량의 소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여 지역별 출하의 편차가 어느 때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인지역은 전년 44,147,975m³ 대비

9.87% 증가한 48,504,479m³를 출하하였으며 경북지역이 전년 8,071,791m³ 대비 9,403,748m³를 출하하여 16.50% 증가하였다. 또한 대구지역이 5,038,337m³를 출하하여 전년대비 2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